

다이쇼인 절: 산키 다이곤겐

산키 다이곤겐이란 ‘미센 산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신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도(神道)와 불교의 융합(신불습합)이 강렬하게 구현된 귀신이자, 신도에서 신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부처를 말합니다. ‘귀신(鬼神)’이라고는 하지만, 영혼을 의미하는 귀신이 아닌 숭상의 대상으로서 ‘신(神)’을 의미합니다. 산키 다이곤겐의 세 신은 대일여래(우주의 진리를 나타내는 부처)의 화신인 ‘쓰이초 귀신’, 허공장보살의 화신인 ‘지비 귀신’, 불교의 오대명왕 중 하나인 부동명왕의 화신인 ‘마라 귀신’으로 구성됩니다. 이처럼 미야지마 섬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신들에는 ‘미센 산 전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산악신앙’, ‘진언 밀교’, ‘신도에서 말하는 신(神)의 개념’이라는 3 개의 신앙 관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키 다이곤겐이란, 일본 고대의 민간 신앙, 신도, 불교(지금은 각각 독립된 것으로 여기고 있음)가 1,00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신들은 수백 년에 걸쳐 미센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함께 모셔졌습니다. 과거 이곳에서는 신도와 불교가 융합한 형태로 존재했지만, 메이지 시대(1868~1912)로 접어든 1868년에 신정부의 명에 따라 신도와 불교가 분리되었습니다. 산키 다이곤겐을 모셨던 장소는 미야마 신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쓰쿠시마 신사에서 숭상했던 신도의 세 여신(산히메)을 새롭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편, 산키 다이곤겐은 산 정상과 가까운 작은 사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을 ‘산 키도’라고 부르며 오늘날까지 관리의 손길이 닿아 있어 이곳을 찾는 참배객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야지마 섬에서 신도와 불교의 융합을 통해 구현된 귀신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숭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